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24 아이슈 무쿠암 행 2

▶한줄 요약
이 기자 일행은 어렵게 스리나가르에 도착한다. 그리고 이 기자는 꿈속에서 붓다를 만나고 또 다른 자신과 이야기를 나눈다.



# 마침내 스리나가르…붓다를 만나다

맨발의 아이들, 아름다운 사리, 장신구를 주렁주렁 단 여인들…. 차는 어느 사이에 멕레오드간지에 도착해 있었다. 날이 밝아야 출발한다고 하였다. 날이 밝자 멕레오드간지를 출발했다.

잠무 행 버스.

-델리에서 출발했을 경우 잠무를 거치지 않고 스리나가르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오오스마 기자가 송 서화가에게 말했다. 계속 버스를 갈아타고 날이 뜨겁다 보니 자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오오스마 기자는 안쓰러웠던 모양이었다.

잠무에 도착해 저녁에 출발하는 스리나가르행 버스에 셋은 몸을 실었다. 언제부터인가 두통이 시작되고 있었다. 가끔 오오스마 기자가 구토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나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메스꺼워 견디기가 힘들었다. 주위의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곳곳마다 핸드폰을 선전하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 사이사이 시멘트 광고가 눈에 띄었다. 마을이 나타나는가 했더니 소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검문소에서 검문하는 사이 자파띠로 배를 채웠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다. 물 몇 모금으로 입안을 적시고 다시 출발. 이번에는 소 떼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 산 위에 소 임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경적을 울려도 소 떼는 움직이지 않았고 주인도 내려오지 않았다. 길바닥에 누워 되새김질하는 마지막 소 한 마리를 길가로 끌어내다시피 해서야 길이 뚫렸다.

-여기서도 스리나가르로 바로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참을 나아가는데 오오스마 기자가 말했다. 그가 바로 스리나가르로 가지 않은 것도, 버스 편을 이용한 것도 스리나가르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고산병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란 천천히 적응하는 것뿐이었다. 낯선 풍경에 자꾸 시선이 갔다.

잠무를 채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버스에서 내렸다. 조용한 숙소가 있을 리 없었다. 터미널 3층에 호텔 비슷한 것이 하나 있었다. 우선 그곳으로 들어갔다. 오오스마 기자는 말이 호텔이지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곳이냐는 표정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무 밑이나 길거리에 주저앉지 않을 양이면 그래도 쉴만한 곳은 그곳뿐이었다. 종업원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은 반듯하고 넓었다. 침대 곁에 텔레비전도 있었다. 냉방장치가 되어 있지를 않아서 땀이 질질 흘렀다. 그 흔한 선풍기도 없었다. 오오스마 기자가 먼저 목욕을 했다. 오오스마 기자가 나오자 내가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이란 것이 샤워실이었다. 찬물을 뒤집어썼더니 살 것 같았다. 늦었지만 저녁이나 먹자며 나가려고 하자 구토증이 가시지 않았는지 오오스마 기자가 두 사람만 갔다 오라고 했다.

-시내도 둘러볼 겸 같이 가시죠.

내가 말하자 송 서화가가 거들었다.

-그래요. 더운데 방안에서 한증할 일 있어요.

오오스마 기자가 그것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따라나섰다. 식당이 보이지 않았다. 터미널 뒤쪽으로 돌아가니 시장이 나왔다. 가게마다 호두와 땅콩이 쌓인 것이 보였다.

-여기가 호두나 땅콩의 주산지거든요.

오오스마 기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두 사람을 향해 말했다.

가끔 머리에 터번을 쓴 이슬람교 복장을 한 군인들이 총을 메고 지나갔다. 그제야 나는 이곳이 아직도 파키스탄과의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해 내었다. 총을 멘 군인들의 수가 계속 많아졌다. 들어갈수록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길거리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수족이 없는 이도 있었다. 오오스마 기자에게 어린아이 하나가 막무가내로 매달렸다. 송 서화가가 몇 푼을 주려고 주머니를 뒤지자 오오스마 기자가 말렸다.

-주지 마십시오. 주는 걸 보면 주위의 애들이 벌떼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오오스마 기자가 애들을 밀쳐버렸다. 뒤에서 뭐라고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냥 가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오오스마 기자가 말했다.

-정말 화가 나는군.

잠시 후 애들이 멀어지자 송 서화가가 투덜거렸다. 인도에 와 그가 느낀 현실들, 없는 자들과 있는 자들의 나라. 외국인만 보면 매달리는 아이들.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랐다.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았으며 뉴델리보다 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스리나가르로 갈수록 향신료를 더 쓰고 있다는 말인데 송 서화가는 아예 입도 대지 못했다.

### 스리나가르여, 스리나가르여 1

우리를 태운 지프가 출발했다. 스리나가르까지 가는 동안 나는 몇 번이고 이름답다고 생각했다. 울창한 숲들, 때로 과수원도 보였다. 아마 사과밭인 것 같았다. 야구방망이처럼 생긴 크리켓을 제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마도 크리켓을 만들어 파는 주산지가 아닐까 싶었다. 계속되는 산과 산. 양 떼를 몰고 가는 목동. 목동의 옷자락을 흔드는 바람.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는 그 무엇도 없다. 내가 거느리고 살던 모든 것들. 거리마다 사람이 넘쳐나고 술에 찌들어 비틀거리는 일상도 없다. 휘황한 네온사인이 어디 있는가. 바람잡이 목동들만 있다. 저 맑은 하늘. 저 많은 목동의 눈망울. 결 좋은 바람. 하늘을 비행하는 새….

어느 사이에 스치는 풍경이 삭막하고 낯설다.



바람이 차다. 지프는 바락바락 악을 쓰며 산길을 기어올랐다. 깎아지른 산벽이 천 길이다. 꼭 도시의 건물들 사이를 비켜가는 것 같다. 산벽랑을 벗어난 지 얼마나 되었을까. 가도 가도 길은 끝이 없다.

어떻게 스리나가르에 도착했는지 몰랐다. 몇 번이고 차는 앞차에 막혀 꼼짝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포장이 안 된 산길이 무너져 한 시간 아니면 두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건 다반사였다. 아예 내려서 걷다 보면 두어 시간 후에 뒤에서 클랙슨이 울렸다. 돌아보면 옆집 아저씨 같은 운전사가 손을 흔들고 있다. 그렇게 스리나가르에 도착했다.

-여기 어딘가에 그 칼이 있단 말이지?

스리나가르는 해발고도 1600m의 젤룸강 변을 따라 발달해 있었다. 젤룸강을 가로지르는 7개나 되는 목조다리. 그 다리와 서로 인접한 수많은 운하와 수로. 그 위로 양 끝이 뾰족하고 바닥이 평평한 시카라가 다녔다.

특히 하즈라트발 사원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곳에 예언자 마호메트의 유명한 머리카락 하나가 소장되어 있다고 했다.

달 호수에 이르자 배낭여행족들은 탄성을 지르고 있었지만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달 호수라기에 물은 달빛처럼 맑고 푸를 줄 알았다. 지프가 멈추고 그들이 차 지붕에 묶어놓은 짐들을 내리는 사이 맡은 것은 물 썩는 냄새였다. 악취가 계속해서 코를 찔렀다. 그래도 호숫가에 피어 있는 연꽃무리가 볼만했다. 마침 석양이 지고 있었다. 석양과 연꽃, 이상한 조화였다. 썩은 물속에 연꽃이 핀다는 사실.

-어디선가 들으니 달호수에서 멋진 하우스 보트를 타고 카슈미르 차를 마시면서 엽서를 쓴다고 하더니….

송 서화가가 실망했다는 듯이 말하자 오오스마 기자가 고개를 내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호수 길이가 8킬로나 되고 폭 만해도 5킬롭니다. 저쪽 네로 공원 뒤로 가면 하우스 보트 사이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서 새벽시장이 열리지요. 장관입니다. 꽃 장사도 있고 생선 장사도 있고…. 모든 것이 호수 위에 떠 있어요. 호텔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하나 같이 지쳐서인지 돌아보자는 말도, 바로 목적지를 찾아가자는 말도 내뱉지 않았다.

-우선 숙소부터 정하고 생각하지요.

오오스마 기자가 한 말이었다.

목적지가 여기서 먼 곳이냐는 말도 나는 묻지 않았다. 우선 숙소를 정하고 쉬고 싶은 생각만 간절했다.

세 사람은 숙소를 정하기 위해 집들이 즐비한 언덕을 올라갔다. 5분 정도 올라가니 호텔이 있었다. 말이 호텔이지 움막이었다. 조금 더 낳은 곳이 없나 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하나 같이 거기가 거기였다. 조금만 나아 보여도 정해서 들어가겠는데 비슷비슷했다. 그렇다고 물어보면 숙박비가 싸지도 않았다.

-좀 더 올라가 차라리 하우스 보트에 들까요? 여기보다 나을 것 같은데 무슬림 장식으로 지어져서 오히려 나을지 모르겠군요. 숙박비가 차라리 쌀지 모릅니다. 하우스 보트가 무려 수천 척이 있으니까요.

-그래요? 하지만 더 찾아보지요.

어쩐지 배에서 잔다는 것이 이상한지 송 서화가가 말했다.

중년 여인 한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달 호수 너머를 가리켰다. 배를 타고 달 호수 너머에 우리가 머물만한 호텔이 있다고 했다. 여기보다 시설이 좋다고 했다. 세 사람은 호수로 내려가 시카라라고 하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갔다.

그녀가 인도한 곳으로 가보니 그래도 조금 나아 보였다. 바로 앞이 연꽃밭이었는데 오오스마 기자가 여기가 좋겠다고 적극적인 면을 보였다.

무슬림 특유의 장식으로 지어진 방에서 셋이 어떻게 밤을 보냈는지 몰랐다. 송 서화가의 코 고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아침이었다.

어젯밤의 꿈이 문득 떠올랐다. 꿈속에서 분명히 나는 그의 글 속을 헤매고 있었다. 붓다가 든 향실이 보였다. 거기 손타라의 죽음을 보면서 침묵했던 붓다가 있었다.

내가 향실로 들어갔을 때 붓다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붓다의 뇌로 들어갔다. 깨친 자의 뇌.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 꿈? 희망? 서원? 붓다의 뇌로 들어갔을 때 나는 경악하고 말았다. 황량한 벌판에 누군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천천히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나였다, 내가 거기 있었다.

-너는 누구냐?

또 하나의 내가 입꼬리를 째고 웃었다.

-나를 몰라?

-누구인데 내 모습을 하고 있는가?

얼떨결에 나는 내 모습을 한 그에게 그렇게 묻고 말았다. 그가 절망적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따질 것 없다. 이 멍충아, 없어.

-뭐가?

-뇌 속이 텅텅 비었다는 말이다. 잘라낼 것이 없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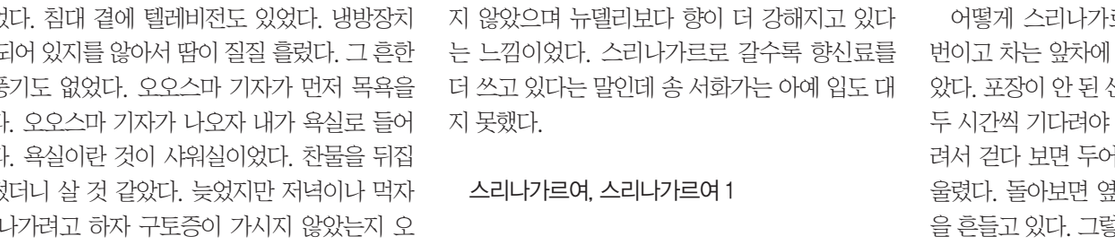
그때 머릿속으로 백정식(白淨識)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뇌 속이 비었다는 것은 꿈이 없어졌다는 말이다. 앎이 끊어졌다는 말이다.

-너는 누구냐?

-왜 자꾸 묻는 거야? 바로 너이지 누구겠어.

-나는 너를 둔 적이 없다.

-하하하 너의 반쪽이지. 이리로 가자고 하면 저리로 가자고 하는…. 늘 항상 이 뇌가 문제였어. 네놈이 이놈을 만날 때마다 날 괴롭혔거든. 그래서 이놈의 희망과 꿈을 잘라내 버리려고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꿈이 없다니…. 〈계속〉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문의 010-5023-5050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